

##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은 경제강국건설의 근본방도

김 남 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6페이지)

현시기 나라의 경제전반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전개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생산활동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그들을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경제관리방법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은 정치적방법을 위주로 하면서 경제기술적방법과 행정조직적방법을 옹계 결합시켜 근로인민대중의 주인다운 자각과 열의를 높여주어 그들을 경제과업수행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경제관리방법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경제관리원리와 방법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이며 경제관리방법을 변화되는 조건과 환경에 맞게 더욱 개선완성해나가는 사업이다.

오늘의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경제관리의 주인인 생산자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어있는 우월한 경제제도이며 이러한 우월성은 그들이 생산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남김없이 발휘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생산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면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그에 맞게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과정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생산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다.

경제관리방법을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하는 방향에서 개선해나가면 근로인민대중이 생산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사회주의원칙과 객관적경제법칙, 과학기술적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경제관리방법들로 부단히 갱신보충된다.

경제관리방법을 사회주의원칙에서 객관적경제법칙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진행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로 부단히 보충갱신해나가면 생산활동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그들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과정은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다.

모든 기업체들은 자체의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반드시 수행하며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의 효과성을 보장하여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진정한 기업관리의 주인, 나라의 경제발전을 떠맡어나가는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기업체들의 역할을 높인다는것은 곧 해당 단위의 경제관리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역할을 높인다는것이며 그들이 맡은 혁명과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자각성을 가지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여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고 더 큰 경제적효과성을 달성하도록 한다는것이다.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원칙에서 국가와 기업체사이의 기능분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나가게 되면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면서도 모든 부문과 단위들의 경제사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할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생산이 늘어나고 근로인민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되며 경제강국건설은 보다 더 힘있게 추진되게 된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밑천을 우리의 힘으로 가장 빠른 기간에 마련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경제부문들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나라의 경제부문구조를 정비보강하여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우 방대한 사업이며 막대한 로력과 설비, 자재를 비롯한 경제적 밑천을 필요로 한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반공화국련합세력의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온 집요한 경제봉쇄책동으로 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들을 외부로부터 들여올수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적 조건이다. 설사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의존하여 건설한 경제를 가지고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없다는것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의 실패가 보여주는 역사적교훈이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밑천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지이고 결심이다.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밑천을 우리의 힘으로 마련하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적극 개발생산하여 최대의 경제적효과성을 달성하여야 한다.

최대의 경제적효과성을 달성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기업소순소득을 늘이는것인데 개별적기업체들에서의 기업소순소득은 직접적으로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밑천으로 된다. 기업

체들에서 기업소순소득을 최대로 늘이자면 생산활동과 경영활동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해당 단위들이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가지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활동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에서는 모든 기업체들이 자체의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가지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능동적으로 조직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경제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높은 경제적실리를 보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로부터 모든 기업체들은 생산을 조직하고 경영활동을 해나가는데서 원가를 절약하고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사업과 규격화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업관리방법들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조직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생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현물적으로 이바지할뿐아니라 더 많은 기업소순소득을 조성하여 나라의 재정도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모든 기업체들로 하여금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어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관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근로인민대중이 생산과 경제관리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경제제도에 기초한 경제강국이다. 그러므로 경제강국건설을 위하여 리용되는 모든 경제관리수법과 수단들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보다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은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주어 최대의 사회경제적효과를 달성하도록 하면서 그들의 활동이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보다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경제관리방법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는 기업체들에 이전시기보다 더 큰 경영상상대적독자성을 주는것으로 하여 생산과 경영활동과정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경제적문제들을 기업체의 결심에 따라 해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적경제관계를 허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더 높아지게 하며 그 결과에 얻어지는 경제적결과는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보다 강화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사회주의적경제관계를 확대하여 그것을 사회주의경제제도로 발전시켰지만 사회주의제도수립후 경제건설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 경제실무주의에 빠져 기업체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정책적지도를 포기하였다. 이 나라들에서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체들이 적용한 리윤본위주의적인 관리방법은 점차 사람들의 머리속에 개인리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게 되었으며 사회경제생활전반에 자본주의사상이 만연되어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당의 령도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기업체들의 독자적인 경영활동도 어디까지나 당의 정책적지도밑에 진행된다.

개별적기업체의 경제활동의 효과성을 따질 때에도 순수한 경제적효과성에 앞서 경제

활동의 결과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실현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진다.

생산과 경영활동분야에서 진행되는 기업체들사이의 경쟁도 앞선 단위는 계속 앞서 달리면서도 뒤떨어진 단위를 적극 도와주고 뒤떨어진 단위는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본받아 더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면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적 경쟁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당과 국가의 지도밑에 진행하는 기업체들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은 개별적단위와 전사회적범위에서의 경제적효과성을 최대로 높이게 할뿐아니라 사람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사회주의적경제관계를 공고발전시켜 우리의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보다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전개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할것이다.